

# 초중급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노다」(のだ) 용법의 사용상 주의점에 관한 연구

오다 야스히로\*

## 차례

- I. 서론
- II. 본론
  - 1. 분류와 사용상의 주의점
  - 2. 「노다」(のだ)문의 두가지 모델
- III. 결론

## I. 서론

### 1. 연구 목적

「노다」(のだ)는 종래에 「설명」이나 「강조」를 나타내고 때로는 무례히 들릴 경우도 있는 표현이라 말해져 왔다. 사실 그러한 면도 있지만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어떤 때에 강조가 되는지 어째서 무례히 들리는지 등의 일본어교육에 도움이 될만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 이 논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때에 「のだ」를 사용하고 그 때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만 하는지를 사용상황의 분류를 통해 논한다.

### 2. 선행 연구

「のだ」에 대한 최근연구의 대부분이 「のだ」문(文) 앞에 어떠한 전제가 있다고 보고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있다. 그리고 그 전제와 「のだ」문으로 제시되는 정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のだ」문의 기능이라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전제가 막연한 경우도 많아 특정지을 수 있는 전제가 있는 「のだ」문만 자세히 논해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특정짓기 어려운 전제를 갖는 「のだ」문이 특정지을 수 있는 전제를 갖는 「のだ」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라는 점을 고려하며 「のだ」문의 용법 전체를 이해하기 쉽도록 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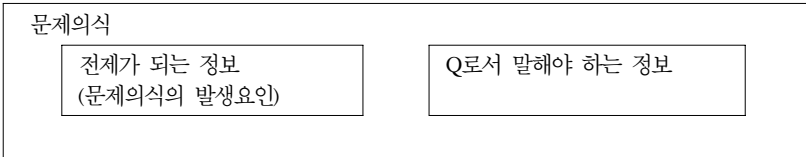
### 3. 연구 방법

먼저 사용상황의 분류를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한다.

첫 번째로 「のだ」문의 전제(이하 이 전제를 P라 부르고 또한 「のだ」문으로 말해지는 정보를 Q라 부른다)가 되는 P를 분류한다. 전제 P는 구체적으로 특정지을 수 있는 것도 있고 특정짓기 어려운 것도 있다. 이 차이를 명확히 한다.

우선 구체적으로 특정지을 수 있는 P는 그 구조를 모델화하면 아래와 같다.

특정지을 수 있는 P의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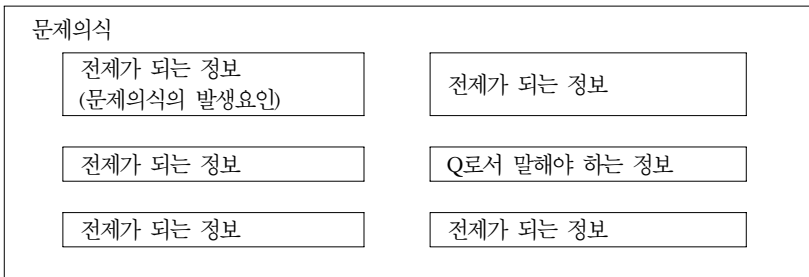
외측 테두리가 문제의식이다. 문제의식이란 상대가 전제가 되는 정보와의 관련 속에서 알고 있어야만 되는 정보가 빠져 있다는 의식이다. 이 문제의식 내의 요소는 두 종류이고 두 개뿐이다. 하나는 전제가 되는 정보이다. 이 전제가 되는 정보는 문제의식 내의 요소가 두 종류이고 두 개뿐이므로 문제의식의 발생요인이기도 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Q로서 청자에게 전해야만 하는 정보이다. 이 중 한쪽이 상대에게 빠져 있는 정보 Q이므로 「のだ」문으로 Q를 상대에게 전했을 경우 Q는 남은 하나인 문제의식의 발생요인(전제가 되는 정보)을 설명하는 관계가 된다. 이를 이하에 「Q는 발생요인의 설명으로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겠다. 평서문은 좀 복잡하므로 의문문으로 예를 든다.

- 예문01 B: 明日、學校を休みます。  
 A: お母さんが入院したんですか。  
 B: 내일 결석하겠습니다.  
 A: 어머니가 입원하셨습니다가?

「결석하다」(學校を休む)라는 것에서 화자에게 문제의식이 생기고 그 정보의 결락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어머니가 입원했다」(お母さんが入院した)라는 Q가 맞는지 어떤지 상대에게 확인하고 있다. 여기서는 「學校を休む」가 발생요인이다. 또한 「お母さんが入院した」라는 Q는 발생요인의 설명으로 되어 있다.

다음은 특정짓기 어려운 P의 구조를 모델화한다.

특정짓기 어려운 P의 모델



여기서도 외측 테두리가 문제의식이다. 이 문제의식내의 요소는 두종류이고 세 개 이상이다. 이 중 하나는 청자에게 그 정보가 빠져있기 때문에 Q로서 청자에게 전해야만 하는 정보이다. 또한 전제가 되는 정보 중 하나는 문제의식의 발생요인이다. 이 때 「のだ」 문으로 Q를 상대에게 전했을 경우 이 이외의 요소를 하나로 특정지을 수 없으므로 전제가 되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의 구멍으로서 인식된다. Q는 특정짓기 어려운 P를 설명하는 관계로 되어 있지 않다. 문제의식의 구멍을 채우는 관계가 된다.

- 예문02 A: (ドアが開かない) ここを押すんですか。  
 B: ええ、そうです。  
 A: (문이 열리지 않는다) 여기를 누르는 것입니까?  
 B: 네, 그렇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는다」(ドアが開かない)라는 것이 문제의식의 발생요인이다. 또한 이 예문에서 Q는 발생요인의 설명으로는 되지 않는다. 발생요인과 Q를 묶기 위해서는 「문을 열기 위해서는」(ドアを開けるためには) 등의 말을 매개시켜야 하다.

예문02에서는 A와 B에게 문제의식이 공유되어 있어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는 특정짓기 어렵지만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다음 예는 특정이 불가능하다.

예문03 A: 今度の社員旅行にウンジュさんも行くんですか。

B: ええ、そうですよ。

A: じゃあ、私も行くことにします。

A: 이번 사원여행에 은주씨도 가는 겁니까?

B: 네, 그렇습니다.

A: 자, 그러면 저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번에 사원여행에 은주씨도 간다면 나도 가지만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는다」(今度の社員旅行にウンジュさんも行くなら私も行くが、行かないなら私も行かない) 등으로 A가 생각하는 것이 문제의식이다. 이 문제의식이나 문제의식의 발생요인이 화자의 내부에 있고 외부화 되어 있지 않다. 또한 발생요인이 외부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Q가 뭔가의 설명으로 되어 있다는 관계로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상 전제가 되는 정보에 대해 그 분류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のだ」 문이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가 명확히 된다.

두 번째로 「のだ」 文으로 나타내진 정보 Q의 분류이다. Q의 근거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다. 많은 예문의 관찰에 의하면 Q는 어디선가 가져온 정보일 때와 문제의식의 발생요인에서 가져온 정보일 때가 있음을 알게 된다. 여기서도 평서문은 문제가 복잡해지므로 의문문으로 예를 든다.

〈Q가 어디선가 가져 온 정보일 때〉

예문04 B: 明日、學校を休みます。

A: お母さんが入院したんですか。

B: 내일 결석하겠습니다.

A: 어머니가 입원하셨습니까?

「學校を休む」라는 것에서 화자에게 문제의식이 생겨 그 정보의 결락부분을 채우기 위해 「お母さんが入院した」라는 Q가 맞는지 어떤지 상대에게 확인하고 있다. 여기서는 「學校を休む」가 발생요인이다. 그 발생요인은 「お母さんが入院した」라는 Q의 근거로는 보기 어렵다. 물론 근거의 일부로는 되어 있겠지만 그 외의 어떤 근거가 없으면 「學校を休む」로부터 「お母さんが入院した」를 끌어내기가 힘들다.

〈Q가 문제의식의 발생요인에서 가져 온 정보일때〉

예문05 B: 昨日、チャンポンを二杯も食べました。

A: チャンポンが好きなんですか。

B: 어제, 짬뽕을 두그릇이나 먹었습니다.

A: 짬뽕을 좋아하십니까?

「짬뽕을 두그릇이나 먹었다」(チャンポンを二杯も食べた)라는 것에서 화자에게 문제의식이 생겨 그 정보의 결락부분을 채우기 위해 「チャンポンが好きだ」라는 Q가 맞는지 어떤지 상대에게 확인하고 있다. 여기서는 「チャンポンを二杯も食べた」는 발생요인이며 또한 「チャンポンが好きだ」라는 Q의 근거로도 되어 있다.

여기서는 「のだ」문으로 말해지는 정보Q가 어디에서 가져왔는지를 기준으로 나눴다. 나중 상세히 논하지만 이 분류를 함에 따라 「のだ」문의 잘못된 사용법의 원인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분류와 두 번째 분류를 행하면 다음과 같다.

		「のだ」문의 Q	
		어디선가 꼬집어냄	발생요인에서 꼬집어냄
전제P	특정지을 수 있는 P	가) 플러스정보	나) 해석정보
	특정짓기 어려운 P (P가 외부화되어 있으며 PQ의 설명관계없음)	다) 키(Key)정보	라) 없음
	특정짓기 어려운 P (P가 외부화되어있지 않음)		

가)는 문제의식의 발생요인(특정지을 수 있는 P)에서 생긴 (어떤 정보가 빠져 있다는)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 어디선가 끄집어낸 Q를 말하는 것이다. 특정지을 수 있는 P에 Q라는 정보를 플러스하는 구조가 되므로 이것을 「플러스정보」라고 명한다.

나)는 문제의식의 발생요인(특정지을 수 있는 P)에서 생긴 (어떤 정보가 빠져 있다는)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 그 발생요인에서 해석한 Q를 말하는 것이다. 특정지을 수 있는 P에 Q라는 정보를 플러스하는 구조가 되지만 Q는 플러스정보와는 다르며 특정지을 수 있는 P로부터 해석한 것이다. 그 특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것을 「해석정보」라고 명한다.

다)는 문제의식이 외부화 되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 어디선가 끄집어낸 Q를 말하는 것이다. P는 특정짓기 어려우므로 Q가 문제의식의 구멍을 메운다는 구조가 된다.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한 키(Key)가 되는 정보를 말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키(Key)정보」라고 명한다.

라)는 특정짓기 어려운 P에 구체적인 무엇인가로부터 해석한 Q를 플러스한 경우지만 Q가 발생요인에서 꺼낸 것이라면 그 발생요인이 특정되어 나)의 해석정보로 여겨진다. 또한 그렇게 생각지 않을 경우는 Q는 어디선가 끄집어낸 것으로 여겨져 다)의 키(Key) 정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 특징이 「のだ」문에서 인지된다.

가) 플러스정보      나) 해석정보      다) 키(Key)정보

이상과는 별도로 세 번째 평서문과 의문문을 구별한다. 또한 네 번째는 대인적 용법(對人的用法)과 대사적 용법(對事的用法)을 구별한다. 이것은 노다(1997)가 행한 구별이다. 대인적인 것은 청자는 인식하고 있지 않지만 화자는 인식하고 있는 Q를 제시하는 것이고 대사적인 것은 화자가 인식하고 있지 않았던 Q를 파악했을 때에 사용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남을 향해 이야기한 것인지 자신을 향해 이야기한 것인지에 대한 차이이다. 예를 들면

〈대인적무드〉

예문06 B: 田中さんが来ませんね。

A: 用事があるんですよ。

B: 다나카씨가 안오네요.  
A: 불일이 있거든요.

〈대사적무드〉

예문07 A: 田中さんがこないなあ。たぶん、用事があるんだ。  
다나카씨가 안오는군. 아마 불일이 있나 보군.

이상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분류를 하면 다음과 같다.

대인적(对人的)	のだ (대인적평서문)	1. 플러스정보 2. 키(Key)정보 하위분류있음
	のか (대인적의문문)	3. 플러스정보 4. 해석정보 5. 키(Key)정보 하위분류있음
대사적(对事的)	のだ/のか	6. 사태의 파악

여기 대인적 평서문에 있어 「해석정보」가 없음은 이하의 이유에 따른다.

예문08 A: 運転免許を取りました。だから、今日から運転できるんです。  
운전면허를 땀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운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운전면허를 땀다」(運転免許を取った)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문제의식이 생겼다고 느껴 그 정보의 결락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오늘부터 운전을 할 수 있다」(今日から運転できる)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는 「運転免許を取った」가 화자의 문제의식(청자에게 문제의식이 생겼다고 화자가 느끼는 것)의 발생요인으로 되어 있다. 그 발생요인은 언뜻 Q의 근거처럼 보인다. 그러나 「運転免許を取った」와 「今日から運転できる」의 표면적 관계가 Q는 P의 결과 등으로 되어 있을 뿐으로 화자가 거기에서 정보를 끄집어내고는 있지 않다. 원래 화자의 머리 속에 있었던 정보를 「첨가(덧붙임)」했을 뿐이다. P와 Q의 관계는 「免許を取った」와 「運転できる」의 관계가 아니라 문제의식과 「運転できる」의 관계이다.

## Ⅱ. 본론

### 1. 분류와 시용상의 주의점

#### 1.1. 대인적 평서문의 플러스정보

대인적 평서문에서 플러스정보의 기능은 두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거기에서 나오는 상대의 의문을 자기가 예상해서 그 대답이 되는 정보를 플러스하는 것이다. 예를 본다.

例文09 A: 明日、學校を休みます。(!) 病院に行くんです。

내일 결석하겠습니다. 병원에 갑니다.

「學校を休む」라는 것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문제의식이 생겼다고 느껴 그 정보의 결락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お母さんが入院した」라는 정보 Q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學校を休む」가 화자의 문제의식(청자에게 문제의식이 생겼다고 화자가 느끼는 것)의 발생요인으로 되어 있다. 화자의 문제의식의 해결을 위해 청자에게 생겼다고 여겨지는 문제의식의 정보의 결락부분을 보충한다.

여기서 주의 해야할 점은 상대가 의문을 가질 것을 예상해서 말하는 문이다. 단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플러스하는 문은 아니다. 어떠한 문이 적당한가하면 「どうして」나 「どうした」등에 대응할 것 같은 전제의 존재이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를 본다. 「\*」가 있는 것은 예문의 상황에서는 잘못된 사용법으로 들리는 것이다.

예문10 A: これかわいいかばんでしょう。

日本で買ったんです。

\* 高かったんです。

\* とてもうれしいんです。

이거 예쁜 가방이죠

일본에서 샀습니다.

\* 비쌌었습니다.



\* 굉장히 기쁩니다.

「일본에서 샀습니다」(日本で買ったんです)는 A가 가방을 「왜 갖고 있는 것인지」(どうして持っているのか/どうしたのか)라는 의문에 대답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비쌌었습니다」(高かったです)는 가방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가방을 A가 가지고 있는 것의 배경정보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어떠한 문제의식이 있어 그 정보의 구멍을 메우려는 키(Key)정보적인 사용방법이다. 또한 「기쁩니다」(うれしいんです)는 가방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 「가방을 소유 할 수 있게 된 기분」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완전한 키(Key)정보이다.

대인적 평서문의 플러스정보로서의 바른 예문 몇 가지를 들면

예문11 B: 100點(!)、おめでとう。

A: ありがとう。昨日、寝ないで勉強したんです。

B: 100점, 축하해요.

A: 고마워요. 어제 안자고 공부했어요.

예문12 B: これ、おいしいですね。(!)

A: 少しワインを入れてみたんです。

B: 이거, 맛있군요.

A: 와인을 조금 넣어 보았습니다.

예문13 A: それ、きれいに使ってくださいね。(!)とても高かったです。

그거 깨끗이 사용해 주세요. 굉장히 비쌌었습니다.

## 1.2. 대인적 평서문의 키(Key)정보

대인적 평서문에서 키(Key)정보의 기능은 상대가 키(Key)가 되는 정보를 모른다고 여겼을 때 그 키(Key)가 되는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이 정보를 이용해서 생각해 주시오」라는 이미지이다. 키(Key)정보에서는 문제의식이 화자와 청자에게 공유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공유되어 있지 않고 화자의 의식 내부에만 있는 경우도 있다.

먼저 공유되어 있는 경우의 예를 든다.

예문14 (切符の買い方がわからなくて困っているBに)

A: このボタンを押すですよ。

(표 사는 법을 몰라서 곤란해 하고 있는 B에게)  
이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표사는 법을 몰라서」(切符の買い方がわからない)라는 것이 문제의식의 발생요인이다. 그러나 「여기를 누르다」(ここを押す)라는 것의 근거로는 되지 않는다. 또한 이 예문에서는 Q가 발생요인의 설명으로 되어 있지 않다. 발생요인과 Q를 묶기 위해서는 「문을 열기 위해서는」(ドアを開けるためには) 등의 말을 매개시켜야 한다.

또한 문제의식이 화자의 의식 내부에만 있을 경우의 예다.

예문15 (田中さんはナヨンさんが好きです。)

田中：今度の社員旅行には行かないつもりです。

鈴木：ナヨンさんも行くんですよ。

(だから、あなたも行ったらどうですか。)

(다나카씨는 나연씨를 좋아합니다.)

이번 사원여행에는 안갈 생각입니다.

나연씨도 가는데요

(그러니까 다나카씨도 가는데 어떠십니까?)

「안 갈 생각이다」(行かないつもりだ)가 발생요인이고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한 「은 주씨도 간다」(ウンジュさんも行く)는 발생요인의 설명으로 되어 있지 않다. 문제의식은 청자에게는 공유되어 있지 않고 화자의 내부에만 있다.

여기서 주의 해야할 점은 키(Key)정보는 키(Key)가 되는 정보를 말하는 문이다. 단지 강조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문이 아니다.

예문16 B：昨日のドラマを見ましたか。

A：\* とてもおもしろかったんです。

B：・・・(だから? 何?)

A：・・・・・・・・

B : 어제 드라마 보셨습니까?  
 A : \* 정말 재미있었던 것입니다.  
 B : . . . . .그러니까, 뭐하는 거지?  
 A : . . . . .

다만 그 정보가 키(Key)가 되어 이야기를 계속할 때는 바른 문이다. 그때는 「んです  
 が」라는 형태로도 자주 사용한다.

대인적평서문의 키(Key)정보로서의 바른 예문 몇 가지를 들면

예문17 A: これ、誕生日のプレゼント。  
 B: わあ、すごい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A: みんなで買ったんです。  
 A : 이거, 생일 선물.  
 B : 와, 멋지네요 고맙습니다.  
 A : 모두 함께 산 겁니다.

예문18 B: 今日の放課後、遊びに行きませんか。  
 A: 今日はアルバイトがあるんです。  
 B : 오늘 방과 후에 놀러 안갈래요?  
 A : 오늘은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예문19 A: あのう、おつりが足りないんですが。  
 저, 잔돈이 모자르는데요

### 1.3. 대인적 의문문의 플러스정보

대인적 의문문에서 플러스정보의 기능은 보거나 듣거나 한 것(!)에 대해 그 보거나 듣거나 한 것에서 나온 질문을 하는 것이다.

예문20 B: 明日、學校を休みます。(！)  
 A: どうして休むんですか。  
 B: 내일 결석하겠습니다.

A: 왜 결석하는 겁니까?

여기서 주의 해야할 점은 YesNo Question으로 특히 한정지어 질문할 때는 상대가 그 질문을 해석정보로서 파악해 「그렇게 생각한 근거는 뭐지?」라고 생각해 버릴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질문의 선택보기가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뭔가에 특정하고 있는 경우이다.

예문21 B: 韓國料理が好きです。

A: チャジャンミョン / キムチ / カルビ etc. が好きなんですか。

B: 한국요리를 좋아합니다.

A: 자장면 / 김치 / 갈비(등)을 좋아하십니까?

예문22 B: かわいいぼうしでしょう?

A: それ、日本 / アメリカ / フランス etc. で買ったんですか。

B: 예쁜 모자이지요?

A: 그거 일본 / 미국 / 프랑스(등)에서 산 것입니까?

예문21에서는 거의 해석정보로 생각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생각한 근거는 뭐지?」라고 상대가 생각해 버린다. 하지만 예문22의 경우는 예컨대 B가 일본인이거나 얼마 전 일본에 갔다왔다 등의 B에 대한 예비지식이 있다면 특정해서 물어도 해석정보로는 느껴지지 않는다.

왜 잘못 사용된 「のだ」문이 이상하게 들리는지는 여기에 원인이 있다. 「のだ」문은 외부화되어 있는지 어떤지와는 상관없이 어떠한 전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のだ」문으로 어떠한 정보를 聽者에게 전하거나 묻거나 할 경우는 외부화되어 있는 발언이나 상황과 관련지어져 버린다. 비(非) 「のだ」문의 경우는 그러한 전제와의 관련지음이 없으므로 새로운 화제로서 자연스럽게 회화가 진행된다. 하지만 「のだ」문의 경우는 외부화되어 있는 발언이나 상황과 관련지어져 화자와 청자 사이에 전제로서 있는 것에 대해 인식의 어긋남이 생긴다. 이것이 잘못 사용된 「のだ」문이 이상하게 들리는 원인 중 하나로 되어 있다.

대인적 의문문의 플러스정보로서의 바른 예문 몇 가지를 들면

예문23 B: 今度の休みは旅行をするつもりです。(!)

A: どこに行くんですか。

B: 이번 휴가에는 여행을 할 생각입니다.

A: 어디로 갑니까?

예문24 (Bさんがお腹を押えている)(!)

A: どうしたんですか。

(B씨가 배를 감싸쥐고 있다)

A: 무슨일이예요?

예문25 B: 明日、學校を休みます。(!)

A: 旅行でも行くんですか。

B: 내일, 결석하겠습니다.

A: 여행이라도 갑니까?

#### 1.4. 대인적 의문문의 해석정보

대인적 의문문에서 해석정보의 기능은 보거나 듣거나 한 것(!)에 대해 그 보거나 듣거나 한 것에서 생각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예문26 B: 昨日、チャンポンを2杯も食べました。(!)

A: チャンポンが好きなんですか。

B: 어제, 짬뽕을 두그릇이나 먹었습니다.

A: 짬뽕을 좋아하십니까?

「짬뽕을 두그릇이나 먹었다」(チャンポンを二杯も食べた)라는 것에서 화자에게 문제 의식이 생겨 그 정보의 결락부분을 채우기 위해 「짬뽕을 좋아한다」(チャンポンが好きだ)라는 Q가 맞는지 어떤지 상대방에게 확인하고 있다. 여기서는 「チャンポンを二杯も食べた」는 발생요인이며 또한 「チャンポンが好きだ」라는 Q의 근거로도 되어 있다. 또한 Q는 발생요인의 설명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보거나 듣거나 한 것을 그대로 「のか」로 질문했을 때는 「정

말료?」(本當に?)라는 뉘앙스가 생긴다. 「本當に?」가 의심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될 때도 있다.

예문27 (Bが喜んでる)

A : 喜んでるんですか。(本當に? 演技じゃない?)

(B가 기뻐하고 있다)

A : 기뻐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연기하는거 아닙니까?)

대인적 의문문의 해석정보로서의 바른 예문 몇 가지를 들면

예문28 (Bがお腹を押えている)(!)

A : お腹が痛いんですか。

(B가 배를 감싸쥐고 있다)

A : 배가 아픍니까?

예문29 (Bが喜んでる)(!)

A : 何かいいことがあったんですか。

(B가 기뻐하고 있다.)

A : 무슨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예문30 (飲み屋で)

B : もう10時だから、歸ります。(!)

A : えっ、もう? 奥さんがこわいんですか。

(술집에서)

B : 벌써 10시니까 돌아가겠습니다.

A : 네, 벌써요? 아내가 무섭습니까?

### 1.5. 대인적 의문문의 키(Key)정보

대인적 의문문에서 키(Key)정보의 기능은 자신이 키(Key)가 되는 정보를 모른다고 여겼을 때에 그 키(Key)가 되는 정보를 질문하는 것이다. 「이 정보를 이용해 생각하겠다」라는 이미지이다. 여기서도 평서문의 경우와 같이 문제의식이 질문자와 질문받는 자에게

공유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공유되지 않고 질문자만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먼저 공유되어 있는 경우의 예를 든다.

예문31 A: (ドアが開かない) ここを押すんですか。  
(문이 열리지 않는다) 여기를 누르는 것입니까?

「문이 열리지 않는다」(ドアが開かない)라는 것이 문제의식의 발생요인이다. 그러나 「여기를 누른다」(ここを押す)라는 것의 근거로는 되지 않는다. 또한 이 예문에서는 Q가 발생요인의 설명으로 되어 있지 않다. 발생요인과 Q를 묶기 위해서는 「문을 열기 위해서는」(ドアを開けるためには) 등의 말을 매개시켜야 한다.

다음은 공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예이다.

예문32 A: 今度の社員旅行にナヨンさんも行くんですか。  
(ナヨンさんも行くなら私も行くけど行かないなら私も行かない。)  
A: 이번 사원여행에 나연씨도 가는 겁니까?  
(나연씨도 간다면 나도 가지만 가지 않는다면 나도 가지 않겠다.)

여기서는 문제의식의 발생요인이 화자의 내부에 있고 외부화 되어 있지 않다. 또한 발생요인이 외부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Q가 뭔가의 설명으로 되어 있다는 관계가 되지 않다.

여기서 주의 해야 할 점은 특히 상대에 관해 질문할 경우에 상대가 「어째서 그 정보가 필요하지」라고 의아히 생각할 경우도 있다. 물론 이것은 질문하는 내용에도 따르지만 「のだ」문이 문제의식 속에서 초래된 것이므로 비 「のだ」문보다 한층 더 「그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예문33 A: 戀人はいるんですか。  
B: えっ。(そんなことを聞いてどうするの?)  
애인있어요?  
네? (그런걸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또한 플러스정보 때와 같이 YesNo Question으로 특히 한정지어 질문할 때는 상대가 그 질문을 해석정보로서 파악해 「그렇게 생각한 근거는 뭐지?」라고 생각해 버릴 경우가 있다.

예문34 A: 鉛筆を借りたいんですが、\* 鉛筆があるんですか。  
연필을 빌리고 싶습니다만, 연필 있어요?

상대가 해석정보로서 그 질문을 파악한다는 것은 질문 자체의 내용이 변해버린다는 의미이다. 비 「のだ」 문인 「鉛筆がありますか」라는 질문에서는 「鉛筆があるかないか」를 질문하고 있는데 비해 「のだ」 문인 「鉛筆があるんですか」라는 질문은 어떠한 발언이나 상황 등의 전제의 의미를 확인하는 질문이다. 「鉛筆があるかないか」를 묻는 질문이 아니다. 하지만 상대가 키(Key)정보로서 질문을 파악했을 경우는 「鉛筆があるかないか」를 묻는 질문이 된다. 상대가 질문을 해석정보로서 파악할지 키(Key)정보로서 파악할지 기준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대인적 평서문의 키(Key)정보로서의 바른 예문 몇 가지를 들면

예문35 (觀光バスで觀光している時に)

A: 荷物は持っておりんですか。

(관광버스를 타고 관광하고 있을 때)

A : 짐은 가지고 내려요?

예문36 生徒: 先生、勉強する時間がありません。

先生: 學校まで何で來るんですか。

生徒: バスです。

先生: では、バスの中でしてください。

학생: 선생님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선생: 학교까지 뭐타고 와요?

학생: 버스요.

선생: 그럼 버스안에서 하세요.



예문37 A: 切符を買いたいんですけど、どうやって買うんですか。  
표를 사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사요?

### 1.6. 대사적(對事的) 용법

대사적(對事的) 용법의 기능은 의문이 해결되어 납득했을 때에 그 납득한 정보를 말하는 것이고 또는 보거나 듣거나 해서 납득했을 때에 그 납득한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대사적(對事的) 용법을 세분화하면 그 속에 플러스정보, 해석정보, 키(Key)정보가 제 각각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로 취급하겠다. 예를 들면

예문38 (押しても開かないドアが引いたら開いた)  
A: あっ、引くんだ。  
(밀어도 열리지 않는 문이 당겼더니 열렸다)  
A: 앗, 당기는 거구나!

또한 「んですね」라는 형태로 납득한 것을 상대에게 가볍게 확인하는 용법도 있다.

예문39 (Bさんの赤ちゃんが歩いている)  
A: もう、歩け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ね。  
(B씨의 아기가 걷고 있다)  
A: 벌써, 걸을 수 있군요

게다가 「んですか(のか)」가 의문이 아닌 「んだ」와 같은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다.

예문40 A: へえ、そうなんですか。  
A: 예. 그렇습니까?

대사적 평서문의 바른 예문 몇 가지를 들면

예문41 (死んだと思っていたへびが動く)  
A: あっ、生きているんだ。  
(죽었다고 생각했던 뱀이 움직인다)

A: 옷, 살아있네.

예문42 (外から来た人の傘が濡れている)

A: 雨が降っているんだ.

(밖에서 온 사람의 우산이 젖어있다)

A: 비가 오는구나!

예문43 A: さっき、頼んだ書類、もうできましたか。

B: それが, 急にお客さんが来て・・・

A: まだ, できていないんですね。

A: 아까, 부탁한 서류 다 되었나요?

B: 그게 갑자기 손님이 와서・・・

A: 아직 안되었군요.

예문44 B: この間の雨で洪水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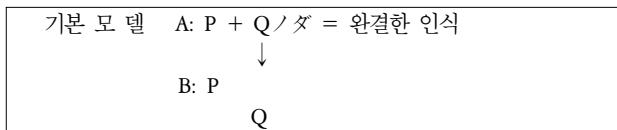
A: へえ, そんなに降ったんですか。

B: 요전에 비로 홍수가 났어요.

A: 예? 그렇게 많이 왔어요?

## 2. 「のだ」(のだ)문의 두 가지 모델

여기서 「のだ」문의 이해를 더욱 돕기 위해 대인적 평서문에서의 「のだ」문의 두 모델을 나타낸다. 첫 번째는 플러스정보, 해석정보, 키(Key)정보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화자와 청자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을 경우이다. 또 하나는 키(Key)정보의 화자만이 문제의식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이다. 먼저 전자의 예를 본다.



여기서의 알파벳을 정의하면 A는 화자, B는 청자, P는 전제, Q는 「のだ」를 붙여 나

타내지는 정보, 화살표↓나 ↑는 정보의 이동이다. B의 옆에 보여지는 P나 Q는(이 모델에서는 P만) 화자에 의한 Q의 발화 이전에 B에게 있던 정보로 그 밑의 행에 보여지고 있는 P나 Q는(이 모델에서는 Q만) 화자에 의한 Q의 발화이후에 B가 가졌던 정보이다. 이 모델의 의미를 예문으로 나타내 설명한다.

예문45 A: 明日、學校を休みます。母が入院したんで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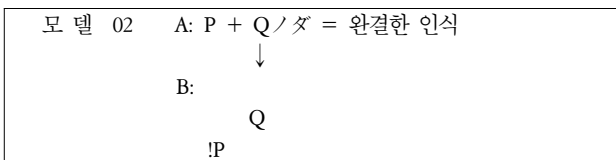
B: ああ、そうですか。

A: 내일 학교 못와요. 어머니가 입원했어요.

B: 아! 그래요?

우선 A가 「明日、學校を休む」라고 P를 제시한다. 그것에 따라 B에도 P가 생긴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B에게 문제의식이 생겼으리라 A가 생각한다. 그리고 B에게 A가 「母が入院した」라는 Q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B도 완결한 인식을 가지게 된다.

또 하나는 화자에게만 문제의식이 인식되어 있는 경우이다.



A는 P와 Q를 가지고 있어 완결한 인식에 이르고 있다. B는 A에 따른 Q의 발화이전에는 P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A에 의해 제공된 Q를 얻음으로 P가 생겨(그것을 「!P」로 나타냄) B도 완결한 인식에 이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예문46 B: お前もそろそろ結婚したらどうだ。

A: いや、いいよ。別に結婚なんか。

B: 相手がいないなら、俺が紹介してやるぞ。

A: いや・・・実は、俺、子供がいるんだ。

B: えっ。

B: 너도 이제 슬슬 결혼해야 되지 않겠니?

A: 아, 싫어. 결혼 같은 것.

B: 상대방이 없으면 내가 소개해 줄게.

A: 싫어·····실은, 나, 아이가 있어.

B: 옛?

A는 B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結婚は子供がいるから無理だ」라고 생각한다. 거기서 A는 B에게 B가 정보Q를 몰라서 결혼을 권한다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Q를 제공한다. 그리고 Q를 얻은 B는 A와 같은 「結婚は子供がいるから無理だ」라는 완결한 인식에 달한다. 이 모델에서의 P는 청자B가 Q를 모른다는 것이 문제라는 화자A의 문제의식이다. 이 모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화자와 청자 쌍방에 처음부터 전제가 공유되어 있지 않아도 「のだ」문은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강조」로 불리는 것이 이 모델에 속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지 강조하고 싶은 것을 「のだ」문으로 말해도 바른 문으로 되기 힘들다. 그것은 「のだ」문이 키(Key)가 되는 정보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강조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것은 「のだ」문 이면에 있는 문제의식 속에 있는 것이다.

### Ⅲ. 결론

이 논문에서 「のだ」를 일본어 교육을 위해서 검토했다. 일본어 교육을 위해서라 함은 「のだ」의 본질이 뭔지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때에 사용하는지라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다. 「のだ」는 때로 무례히 들릴 수도 있는 표현이므로 어떤 때에 사용할지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사용조건이 다른 것은 나누고 실수할 위험이 있는 것은 주의점으로서 보완 설명했다. 이것으로 인해 「설명」이나 「강조」로 말해져 왔던 실체가 어느 정도 보여졌으리라 생각한다.

사용상황의 분류의 포인트는 선행연구에 의한 것도 많지만 나 개인 독자적인 것도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PはQのだ」라는 구문에 있어서의 P를 나누는 일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P가 그다지 상세히 분석되지 않았다. 하지만 P를 분석함으로써 「のだ」를 사

용할 때의 하나의 지표가 생겼다. 즉 P가 어떤 때에 또 Q는 어떤 곳에서 가지고 와서 「のだ」를 사용하면 좋을지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또한 Q를 분류함으로 「무례히 들린다」일 때의 포인트를 알았다. 구체적인 것은 본문에서 논했으므로 여기서 거듭 언급하지는 않겠다.

### 【參考文獻】

- 庵功雄(이오리 이사오) 외 『初級を教える人のための日本語文法ハンドブック』(스リー  
 에어네트워크, 2000)  
 ————— 『中上級を教える人のための日本語文法ハンドブック』(스リー 에어네트워크,  
 2001)  
 奥田靖雄(오쿠다 야스오) 「説明(その1)—のだ、のである、のです—」(言語學研究會編  
 『ことばの科學 4』むぎ書房, 1990)  
 小田泰弘(오다 야스히로) 「일본어 초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のだ」의 용법에 관한  
 연구」(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2)  
 菊地康人(기쿠치 야스토) 「「のだ(んです)」の本質」(『東京大學留學生センター紀要 第  
 10號』, 2000)  
 新屋映子(신야 데루코) 외 『日本語教科書の落とし穴』(株式會社アルク, 1999)  
 田野村忠溫(다노무라 다다하루) 『現代日本語の文法 I 「のだ」の意味と用法』(和泉選  
 書, 1990)  
 寺村秀夫(테라무라 히데오)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 第Ⅱ卷』(くろしお出版, 1984)  
 野田春美(노다 하루미) 『「のだ」の機能』(くろしお出版, 1997)  
 益岡隆志(마스오카 다카시) 『モダリティの文法』(くろしお出版, 1991)

## 初中級學習者を対象とした「のだ」用法の使用上 注意點に関する研究

小田 泰弘

「のだ」は従来、「説明」「強調」などと言われてきた。事實、そういう面もあるが、何を説明しているのか、どういう時に強調になるのか、など日本語教育の助けになる研究は少なかった。この論文は日本語學習者が「のだ」の使い方を習得できるように、その用法を整理することが目的である。そのために場合分けに重點を置き、用法の全體を示すと共に、使用時の條件や間違えないための注意點なども重視した。

「のだ」は一般的に先行文脈や状況などである前提と、「のだ」文で提示される情報との關係を示すものと言われている。この論文では、そのような認識に立って、その理解を更に深めながら場合分けを行う。場合分けをするにあたり、二つの大きな軸を設けた。一つが先行文脈などである前提を特定できるものと特定しにくいものに分けることであり、もう一つが「のだ」文で提示される情報をその根據によって分けることである。この二つの軸を組み合わせて考えることにより、用法の全體がよく見えるようになり、それぞれの用法の使用條件や間違えないための注意點も明確になる。

「のだ」の用法は大きく三つに分けられる。一つ目は、「プラス情報」と私が名付けたもので、これは前提に何らかの情報をプラスする關係になるものである。二つ目の「解釋情報」は、前提に前提から解釋した情報をプラスするものだ。三つ目の「キー情報」は、何らかの問題意識を解決するためのキーになる情報を述べるものである。これらは、先に述べた二つの軸によって分けられたものである。

「のだ」が、時に不快に感じられたり、不自然に感じられたりするのも、以上のそれぞれ三つの用法が適切に使われない場合に、他の用法と間違えて受け取られるためである場合が多い。